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스토리 밤굴 국제워크숍

아시아,
스토리를 말하다

“이제 아시아의 신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난 세기 세계를 지배한 서양의 신화에 반기를 들고 아시아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이 같은 활동의 결실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컨텐츠로 채워질 것이다.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기획하고 문화관광부와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가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워크숍 ‘아시아, 스토리를 말한다’는 이 같은 응대한 꿈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간 시간의 더미에서 찾아낸 아시아의 이야기 한 토막이 아시아의 꿈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다.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방현숙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시아의 신화보다는 서구의 신화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아시아의 드넓은 이야기의 숲 속에서 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더 열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발굴하는 이야기는 세월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은 아시아인의 정신이다, 정신의 숲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방치된 亞 서사 유산 일깨워야



◇고은(시인) 기조연설 = 그동안 서구 중심의 문학 행위와 예술적 작동들이 군림함으로써 아시아 각 지역의 그 지역성이라는 차례로운 독창성들이 담긴 서사 표현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인멸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없지 않았다. 바빌로니아의 문명 유적이 부숴2세의 융단폭격으로 뒷더미가 되었는데 '크리스마스이브의 밤 불꽃놀이'로 표현된 그 포악은 아시아의 이야기 살해라는 사실로 연상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나.

우리 모두 서구적 근대 서사 구조의 ‘권력’에 걸들여진 나머지, 특히 20세기의 근대와 21세기 세계화의 문화 풍토에서의 타율적 단일성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역의 오랜 가치가 폐기되거나 망각될 만성(慢性)의 위기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제 아시아 각 지역의 서사 유산은 깨어나야 한다. 그것은 서사 공간의 심상화(心象化), 무시간이나 시간 단절의 치유, 자연과 인간의 합일, 그리고 해석 이전의 주술 및 직관의 소생(蘇生), 자연 서사와 인간 서사의 궁극적 통일상 등 수많은 가능성을 새로운 서사 전개에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맞을 세기적인 문학 형식의 개척은 그동안 방치된 아시아의 옛이야기들의 세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아시아의 이야기가 그것의 생태성을 통해서 옛이야기가 아니라 새 이야기가 되는 것을 나는 꿈꾼다.

서구 신화 지고 아시아 신화가 세계 지배할 것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 스토리를 말한다’ 국제심포지엄이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공〉

이야기는 보편·특수성 모두 내포



◇조현설(서울대 교수) ‘민담적 복수와 신화적 회화’=‘신화든 민담든 이야기는 지역·민족·국가를 넘어 존재한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야기의 보편성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의미는 특수성에도 존재한다. 친모를 잊고 물고기를 키우는 섭한 이야기, 그 조력자가 악어로 변형돼 나타나는 필리핀의 마리아 이야기, 팔쥐에게 살해되어 연꽃으로 변했다가 다시 구슬로 변신하는 콩쥐 이야기는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적 특수성을 표현한다. 우리가 아시아의 이야기 유산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를 하려는 것은 이 같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몽골 설화 유목문화 풍부하게 담겨



◇센데자빈 돌람 (몽골·몽골국립 대학교 교수) ‘몽골 설화의 분류’=‘몽골의 설화는 ▲동물이야기 ▲마법이야기 ▲영웅이야기 ▲통속이야기 등으로 구분된다. 몽골의 설화를 분류하는 것은 세계 다른 나라의 설화를 분류하는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독특한 측면도 있다. 몽골 부족들의 영웅서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영웅이야기가 나왔다. 몽골 설화에는 특수한 유목 문화와 문명, 유목 생활의 특수한 생활방식, 몽골인의 지적 세계가 반영됐다. 나아가 (몽골만의) 독특한 주인공, 서사, 생각 같은 것이 풍부하고, 몽골어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응축돼 있다.

역사 태초시대 국가수립 기여



◇옹우웬 흄 비(베트남·하노이인 문사회과학대 교수) ‘영남척괴·문화적 접근’=‘영남척괴는 영남 광의 이상한 사건들을 모으고 수집한 것인데, 이야기의 과정은 신비·기괴·경이한 것을 배척하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영남척괴는 최초로 역사의 태초시대의 국가수립에 기여했고, 후대의 역사를 위해 신비로운 유적, 신화를 총괄하는 출중한 사명을 완성했다. 영남척괴는 그저 사적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편찬자들은 종종 사적의 문학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창작의 빛을 들었다. 문학적 감동과 예술적 재능이 있어 편찬자들은 종종 기록의 범위를 넓여선다.

스토리텔링은 가족·문화 소속감 줘



◇로즈마리 소마이어(싱가포르·시인) ‘아시아의 신화와 민담·싱가포르 한 스토리텔러의 관점’=‘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과 타인의 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족·문화·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한다. 그런 과정은 또 가족에 대한 확고한 자아정체성의 감각을 형성하게 도와준다. 이야기는 이야기에 악속한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으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대편이 있거나 또는 대립하는 편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감정이입을 진행시키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야기의 다른 버전을 검토하는 일 또한 우리가 관련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맥락에 적용시키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이 효율적인 도구의 가치를 인정해 잘 존중하면서 필요하면 스토리를 변화시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 임무에 충실히해야 할 교훈



◇툴라라시 디와사 조시(네팔·시인) ‘네팔 민족 : 등장인물 성격의 구체적 특징’=‘네팔에는 다른 유형의 이야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간 본성의 구체적인 특성과 연관된 깊은 설화들이 많다. 그것은 해학적이며 풍자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물의 성격적 특징은 양적인 면, 특기, 침투성, 구체성에 따라 해석되고 분석될 수 있으며 ▲영리함과 꾀에 대한 설화 ▲어리석음에 대한 설화 ▲탐욕과 인색함에 대한 설화 ▲속임수에 대한 설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등장인물은 피가 많고, 어리석고, 욕심이 많으며, 기만적인 성향들을 지니고 있다.

인간 본성 연관 해학·풍자 설화 많아



◇와주파 토싸(태국·마하사라 칼대학교 교수) ‘태국의 문학전통과 두꺼비왕 프야 칸카야은 수세기 동안 이산(태국의 북동지방) 주민들의 삶의 일부였다. 이 이야기는 인간인 한 왕이 비의 신과 맞서 싸워 이겨 마침내 지상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명백한 교훈은 누구나 각자의 임무에 충실히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으로서 프야 칸카야은 의무는 국민이 도tan에 빠져있을 때 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위험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내어 실행해야만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亞문화 창의성·상상력
새 미래 창조 동력으로**”

이병훈 단장 인터뷰



“이번 국제워크숍을 통해, 아시아의 귀중한 스토리 자원들이 새로운 아시아 문화를 창조하는 하나의 훌륭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워크숍 ‘아시아, 스토리를 말한다’

를 기획한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10일 “지금까지 아시아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는 서구의 근대화·산업화·세계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우리는 양식화·일반화되지 않은 자원의 원형으로 존재하는 아시아 문화의 잠재적 가치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새로운 미래 창조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아시아인들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를 추진해 나갈 때, 국가 단위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시아인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2014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 아시아의 스토리, 조형상장·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개관 전까지 집중적으로 조사 활동과 아카이빙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아시아 스토리 조사사업’은 그 중 스토리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각국의 문학과 예술 저변에 깔려 있는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적 저력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아시아 스토리 조사사업은 이미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해 아시아 전역의 스토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스토리 디렉터리 작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토리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의 대표적인 스토리들을 주제로 아시아의 귀중한 스토리 유산을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행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부페**

**객실 500석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을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합식과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복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
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Canon

Canon 스토어 광주점 OPEN

**오픈기념
특가 한정판매!!**

이벤트 기간 : 11월 15일까지

- ▶ EOS 500D 바디
소비자 ~~₩819,000~~ → ₩555,000
- ▶ EOS 500D (18-55렌즈포함)
소비자 ~~₩918,000~~ → ₩650,000
- ▶ IXUS 300HS+CASE
소비자 ~~₩429,000~~ → ₩262,000
- ▶ IXUS 310HS+CASE
소비자 ~~₩399,000~~ → ₩291,000
- ▶ POWER SX30IS+CASE
소비자 ~~₩599,000~~ → ₩495,000

= 더블 캐쉬백

각 관공서, 기업체, 납품전문업체 및 도매

Canon 스토어 광주점
-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 -

TEL 062) 383-3000